

사계절 무한대의 활기찬인 스포츠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산동 (명절특별행사) 100주년 기념(개기)
- 우천시 9월 이후 특별요청정신제 실시
- 예약 : www.hpdyashy.co.kr 0801 320-7700

金 확실히 ... 세계신 관심

여자 역도 장미란 “국민에 희망·기쁨 주겠다”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25·고양시청·사진)이 2008 베이징올림픽 역도에서 세계신기록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승우 여자 역도 대표팀 감독은 15일 “장미란이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의 무상샹(24)의 불참으로 여자 최중량급(+75kg) 금메달을 사실상 예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장미란이 16일 베이징항공항천대학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 종전 세계기록을 경신하겠다는 의미다.

오 감독은 “금메달이 유력하다 해도 장미란이 긴장을 놓지 않고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는 각오가 대단하다”면서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미란은 경기 당일 인상과 용상, 합계 3종목 모두 세계기록을 깨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장미란은 인상에서는 2차 시기에서 경쟁자들을 확실하게 따돌리고 3차 시기에서 세계기록을 수립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미란은 또 인상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용상에서는 1차 시기에서 금메달을 확정된 뒤 2, 3차 시기에서 세계기록에 도전하겠다는

계산을 짰다.

장미란이 세계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 달 장미란은 태릉선수촌 훈련에서 인상 140kg, 용상 190kg을 각각 들어 인, 용상 합계에서 330kg으로 비공인 세계신기록까지 세웠다. 종전 인상과 용상, 합계 세계기록을 모두 갈아치울 수 있는 기록이다. 무상샹은 인상(139kg)과 합계(319kg) 세계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용상 세계기록은 탕궁홍이 작성한 182kg이다.

장미란이 한국에 금메달을 안기는 것 뿐 아니라 세계기록이라는 보너스를 동시에 내 놓을 수 있을 지 기대된다. /연합뉴스



男 24년 ‘한풀이’ 실패



남자 양궁이 이번에도 개인전 금메달의 벽을 넘지 못했다. 1984년 ‘꽃매지’ 서향순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선 순간부터 남자 양궁의 올림픽 ‘불운’은 시작됐다. 당시 구자철이 8위, 최원태가 11위, 전인수가 22위에 머물렀을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다.

이때만 해도 남자 양궁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정상이 아니었다. 여자가 197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에서 김진호의 개인·단체전 제패로 화려한 신고식을 치른 반면, 남자는 3위(1991년 정재현)가 고작이었다.

남자양궁이 올림픽 정상에 가장 접근한 건 1988년 서울올림픽(박성수)과 1992년 바르셀로나대회(정재현)에서 은메달을 따냈을 때였다. 1993년 박경모의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로 다시 올림픽 금메달 희망에 불

타기 시작한 남자는 1996년 애틀랜타와 2000년 시드니대회에 오교문, 장용호라는 스타를 앞세워 한풀이에 나섰다. 하지만 오교문이 애틀랜타에서 동메달을 따낸 것을 마지막으로 그 후로는 노메달 행진이 이어졌다.

특히 국내의 전문가들이 우승 1순위 후보로 지목한 세계랭킹 1위 임동현(22·한국체대)이 16강에서 탈락한 장면이 결정적이었다. 2000년 시드니대회 8강에서 오교문을 격파한 빅터 원더리(미국)는 이번에도 임동현을 물리치면서 ‘한국 킬러’ 이미지를 이어갔다.

흔히 8강에 오른 박경모마저 자신에게 쏠린 부담을 끝내 털어내지 못하고 결승에서 빅토르 루반(우크라이나)에게 패했다. 박경모는 경기 직후 “베이징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게 아쉽다”며 현역 공식 은퇴를 선언했다.

남자 양궁 ‘조련의 귀재’

순천고 출신 장영술 감독

값진 금·은 일궈다



순천고 출신의 장영술(48·사진) 양궁 남자 대표팀 감독이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값진 개인 은메달을 국민들에게 선사했다.

16일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박경모가 우크라이나의 루반에게 1점차의 아쉬운 패배로 한국 남자 대표팀 사상 첫 금메달의 꿈을 4년 뒤로 미뤘다. 그러나 장영술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단체전 3연패를 지휘하며 ‘금메달 제조기’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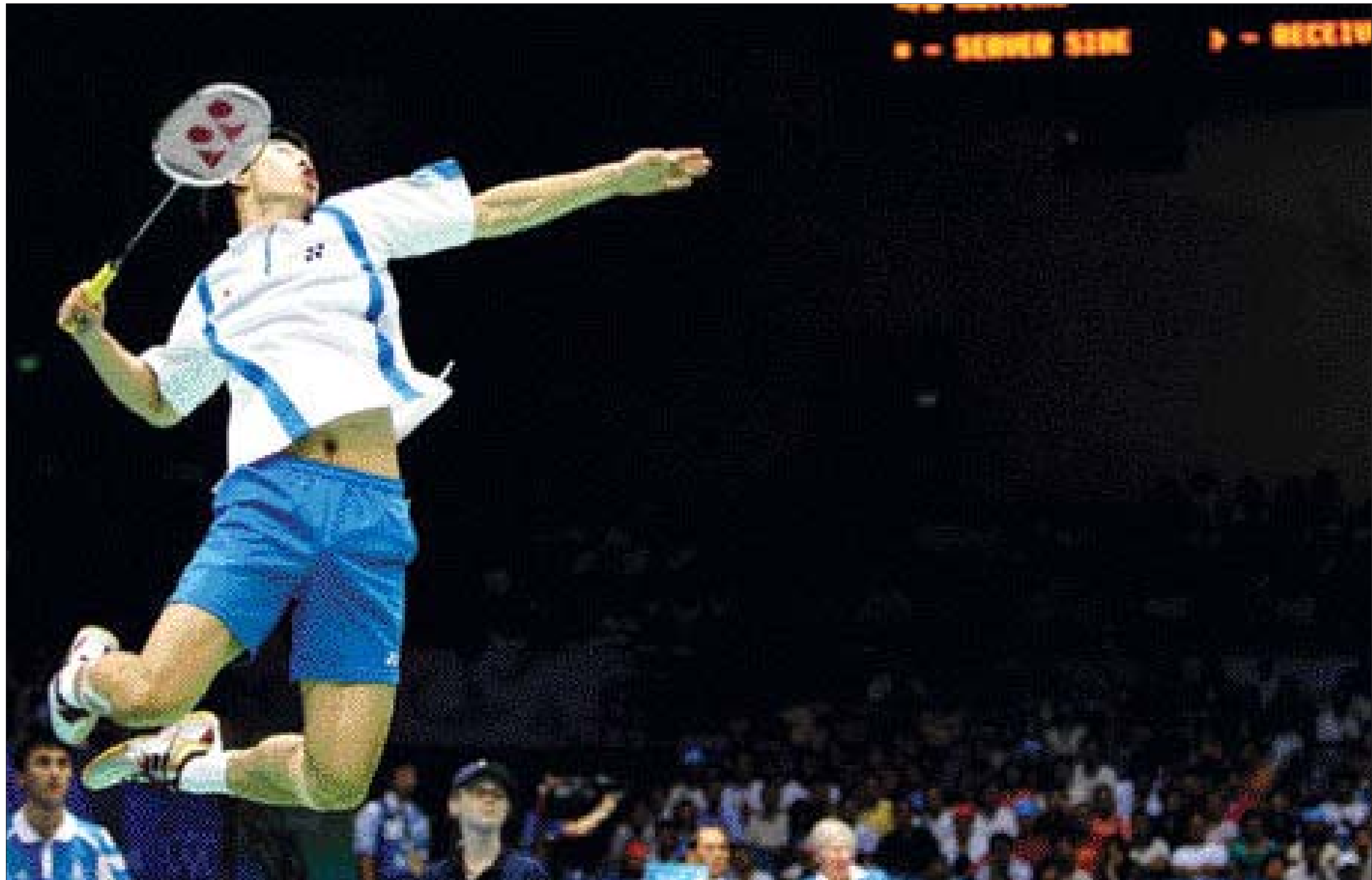
장 감독은 1994년 남자부 코치로 애틀랜타 올림픽 무대를 밟은 뒤, 2000년에는 시드니 올림픽에서 여자부 감독을 맡아 단체전은 물론 개인전 금·은·동을 진두지휘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제초했던 장 감독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아테네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박경모·임동현과 또 다시 호흡을 맞춰 남자 단체전 3연패의 위업을 완성했다.

장 감독은 1992년 한국 최초로 양궁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화살 방향에 따른 선수의 경향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는 등 컴퓨터를 이용한 양궁종합관리 시스템으로 한국 양궁의 힘을 키웠다.

남자 양궁은 개인·단체 세계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도 개인전 금메달과의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은메달로 베이징 올림픽을 마무리 지은 장 감독은 아쉬움이 남지만 준결승에서 ‘순천고 동문 맞대결’을 펼치는 등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박경모가 준결승에서 맞붙은 이는 세계 랭킹 1위인 멕시코의 세라노. 그의 뒤에서 승원을 보낸 멕시코 팀의 전략은 순천고 후배인 이웅(45) 감독에게서 나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5일 베이징공과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배드민턴 남자복식 한국 이재진-황지만조 대 중국 카이운-후하이핑조 준결승에서 이재진이 솟구쳐 올라 강스매싱하고 있다. 이재진-황지만조가 0-2로 패배, 3~4위전으로 밀려났다. /연합뉴스

女핸드볼 브라질에 1점차 ‘덜미’

8강 진출은 무난할 듯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브라질에 패하며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 핸드볼 조별리그 B조 4차전에서 남미의 강호 브라질에 32-33, 1점 차로 졌다.

지난 9일 러시아와 1차전을 비긴 뒤 독일과 스웨덴을 잇따라 대파하며 분위기를 살렸던 한국은 이로써 2승1무1패로 첫 패배를 기록했다. 그래도 이미 2승을 챙긴 한국은 최소한 조 4위에 오를 수 있어 8강 토너먼트

진출을 위협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대회 들어 처음으로 치르는 오전 경기여서 그런지 선수들은 몸이 무거웠다. 잦은 패스 미스에 라인 크로스가 수시로 나와 힘을 쓰지 못했다. 그나마 주전 수문장 오영란이 전반에만 8차례의 선방을 해내지 않았다면 점수 차는 더 벌어졌을 지도 모를 만큼 한국은 제 기량을 선보이지 못했다.

전반을 12-17, 5점 차로 뒤진 채 후반을 맞은 한국은 문필희의 외곽포와 허순영의 속공이 이어지며 3분 만에 15-18, 점수 차를 3점 차로 좁혔지만 더 이상 쫓아가지 못했다.

후반 14분 21-25에서 홍정호가 7m 던지기를 2차례 연속 성공하며 맹추격하던 한국은 김남선의 측면 로빙 슈팅과 오성욱의 속공

으로 후반 17분 드디어 25-25 동점을 만들었다. 오성욱은 속공 시 상대 수비수 2명을 2분 퇴장시키며 분위기를 살리는 듯했지만 한국은 5명이 싸운 브라질에 다시 리드를 허용했다. 2~3점 차로 계속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24분 28-31에서 김남선과 박정희의 측면 슈팅이 넷트에 꽂히고 허순영이 속공을 성공시키며 31-31로 동점을 만들었다.

곧바로 1골을 허용한 한국은 종료를 2분을 남기고 홍정호의 7m 던지기가 성공하며 다시 동점을 만들었지만 29초 남은 상황에서 공격 시간이 길어지면서 패시브에 걸려 공격권을 내줬고 1초 전 브라질 센터백이나 호드리게스에게 외곽포를 내주며 패하고 말았다.

北 김정수 도핑 적발 메달 박탈

2008 베이징올림픽 사격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탄 북한의 사격스타 김정수(4·25 국방체육단)가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메달을 박탈당했다고 15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발표했다.

지젤 데이비스 IOC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김정수의 샘플에서 베타 차단제(beta-blocker)의 일종인 프로프라놀롤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김정수는 메달을 박탈당했으며, 이번 대회에서 축출됐다”고 밝혔다.

김정수는 9일 남자 공기권총에서 3위를 한 데 이어 12일 50m권총에서 진중오(KT)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김정수가 탄 공기권총 동메달은 미국의 제이슨 터너에게 돌아가게 됐고, 50m권총 은메달은 3위에 올랐던 중국 탄종량에게 돌아가게 됐다.

김정수의 샘플에서 검출된 베타 차단제는 심장 박동을 늦추는 등 심장에 부담을 줄여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유용한 약물이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50m 동메달리스트

기도한 김정수는 진중오와 올림픽 시상대에 서면 3차례 만나 국내에도 잘 알려진 선수다.

펠프스 6관왕 달성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23·미국)가 6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며 단일 올림픽 최다인 8관왕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했다.

펠프스는 15일 오전 중국 베이징 국가수영경기장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수영 남자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 1분54초23으로 가장 먼저 터치 패드를 두드렸다. 2위는 헝가리의 라슬로 세흐(1분56초52)였고, 라이언 로치트(미국)가 1분56초53으로 동메달을 가져갔다.

개인혼영 400m에 접영 100m, 계영 400m, 자유형 200m, 접영 200m, 계영 800m까지 이미 5개의 금메달을 따낸 펠프스는 이로써 6관왕에 오르며 단일 올림픽 최다인 8관왕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